

# 백제왕궁에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

익산문화재 야행, 4일부터 이틀간 백제왕궁 일원에서 개최... 8夜를 주제로 37개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왕궁(왕궁리유적) 일원에서 2019 익산문화재 야행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2019 익산 문화재 야행은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사(夜史), 야화(夜畵), 야설(夜設), 야식(夜食), 야시(夜市), 야숙(夜宿) 등 8개 주제로 다양한 아간문화 프로그램 37개를 선보인다.

문화재 야행은 지역의 역사성을 간직한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로 2년째, 4회를 맞는다.

4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백제왕궁에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의 공연들과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특히 왕궁리 오층석탑을 돌며 소원을 비는 '천년 기원을 담은 탑돌이'와 '소원등 날리기 행사'는 익산문화재 야행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백제문화일러스트와 근대문화유산 사진작품전이 탐라마을에서 진행되며, 고도육성추진협의회 주민들의 작품인

백제고도 한지등 공예전시는 백제왕궁의 야간을 아름답게 비추 예정이다.

또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중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랜드 플라마켓 이리오숍은 익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공예품 장인들의 모임으로 이번 익산문화재 야행 플라마켓에 참여하여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한다.

먹거리로는 야시장에 참여했던 중앙·매일·서동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며, 탐라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하고 가공한 재료로 만든 어머니의 손맛, '왕궁주막'도 함께 한다.

아울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순환버스나 임시주차장(공설운동장, 서동공원, 동양해의관광차고지)에 주차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스탬프 1개를 획득할 수 있다.

백제왕궁에서 6곳의 스탬프 투어 완료(7개 획득)시 유적지 내 스탬프 투어(6개 획득)와 차별화된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단, 한정된 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왕궁리유적전시관은 23시까지 개방할 계획이며 2019 왕궁리유적전시관 기획 특별전과 수막새와 목관편기 체험, 어좌 체험(의상), 3D체험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익산문화재 야행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잠깐의 휴식이 되길 바라며 과거와 현재, 미래로 특별한 시간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문화재 야행 홈페이지(www.iksan-night.kr)를 참조하면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 가을의 정취와 함께하는 낭만 음악회

동우문화재단 아트홀서 23일 군산대 김준 교수 피아노 독주회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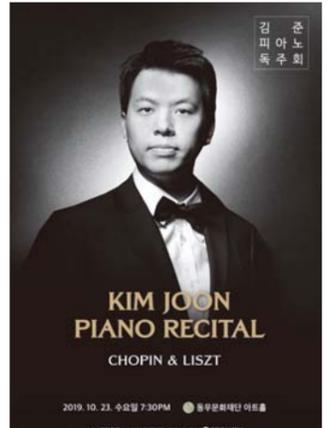
과워풀한 무대, 견고한 테크닉과 깊이 있는 음악성을 가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김준 교수의 독주회가 10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군산 동우문화재단 아트홀에서 열린다.

4년 만에 군산에서 열리는 이번 독주회는 'Soul & Heart' 라는 부제로 쇼팽과 리스트의 곡으로 구성되었다.

음악의 폭넓은 이해와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감동적인 연주세계를 선사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준은 현재 군산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주자 및 교육자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김준 교수는 이번 독주회를 준비하며, "군산에 새롭게 개관한 클래식 전문 연주공간인 동우문화재단 아트홀에서 4년 만에 군산에서 여는 독주회로, 뜻깊은 의미를 주어 레퍼토리에 더욱 신경을 썼다"면서 "가을의 정취와 어울리는 낭만 음악의 대표적인 쇼팽과 리스트의 작품으로 서정성과 화려함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군산 지역사회 소통음악회의 일환인 이번 공연은 10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30



분, 군산 동우문화재단 아트홀에서 개최되고, 8세 이상 입장 가능하다. 공연시간은 인터미션을 포함해서 총 90분이다. 티켓은 전석 초대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산대학교 음악과(☎ 063-469-4391)로 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내일 한마음페스티벌 개최

사)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송병섭)는 '2019 임실N치즈축제'를 기념해 제8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한마음페스티벌을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

특히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예분과는 다양한 체험과 전시프로그램을 축제에 참가하는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한마음페스티벌은 2019년 임실N치즈축제를 기념 축하 및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이 평소 갖고 있던 기량을 선보이고, 생활문화의 비전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한마음페스티벌 공연동호회는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운수밴드와 퉁기타동호회 라인

보우, 민요동호회 한소리한무단, 엄지척라인댄스 등 총 17개 동호회가 출연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다.

또 3일~6일까지 장승동호회의 수대만들기 체험과 미소공방동호회의 아이스구기만들기 체험, 오렌지공방의 토티볼만들기 체험, 끝림동호회의 양말뭉개공예만들기 체험, 모래로스스그림그리기체험, 슬방울놀이체험 등이 진행된다.

송병섭 이사장은 "임실의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를 기념해 열리는 한마음페스티벌로 평소 갖고 있던 기량을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이 멋진 끼와 멋을 보여주는 멋진 무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국악원이 최근 순창국악원에서 열린 제15회 전국시조경창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 순창군, 조상들의 희로애락 담은 전국시조경창대회 성료

순창국악원(원장 조계문)이 최근 순창국악원에서 열린 제15회 전국시조경창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순창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시조협회 순창지회가 주관해 전국 100여명의 시조인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전국에서 모인 시조인들은 평시 조부, 사설시조부, 지름시조부, 명창부, 국창부, 대상부 등 총 여섯 개 분야로 나뉘어 치러졌다.

대표부문인 대상부 장원은 순창군 구림면에 거주하는 김태연씨(65)가 수상해 상금 150만 원을 받았다. 대상부는 완제사설, 각시조, 온지름, 우시조, 위음지름 등 5곡 완제를 통해 장원을 가리는 것으로, 참석자들 대부분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시조를 읊는 모습에 관람객 대부분이 찬사를 보냈다.

이외에도 국창부 1등 정채심(전남 순천), 명창부 1등 이우창(전북 순창), 특부 1등 세노오

리카(전북 순창), 갑부 1등 이순희(전북 남원), 을부 1등 최혜숙(경남 산청)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정가 부문 일반부 장원에는 정유정(대구), 단체부 장원은 진주시지회가 차지했다.

이번 경창대회 대회장인 김봉호씨는 "시조는 오랜 세월동안 애창되어온 우리 조상들의 삶의 희로애락과 고아함이 어우러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면서 "앞으로도 시조의 저변확대는 물론 다음 세대들에게 전승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브라스넛 빅밴드와 공연장에서 즐기는 한편의 영화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브라스넛 빅밴드와 함께하는 Feeling good with B.M.K 공연을 개최한다.

2019년 지방공공 문화공간 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공연 1부에서는 '공연장에서 즐기는 한편의 영화'를 컨셉으로 영화 '라리랜드'를 라이브 공연으로 보는듯한 연출로 브라스넛 빅밴드의 사운드와 뮤지컬 앙상블 팀의 공연으로 꾸러진다.

2부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소울 보컬리스트 B.M.K가 '꽃피는 봄이 오면', '불들어 등의 노래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권 예매는 10월 8일 오전 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nj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